



# 포장개발 경험있는 실무자들로 구성

## 향후 종합 컨설팅 전문연구소로 발돋움

### 1994년 6월 설립

국내 기업들의 포장에 대한 인식은 한마디로 아직 의욕뿐인 추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불과 얼마전부터 '물류, 물류' 하며 기업내에서 관심을 표명하는 듯했으나 결국 막대한 투자가 뒤따르는 이러한 투자에 과감한 추진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막대한 투자액도 기업들이 꺼려하는 이유 중 하나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을 지도할 전문가가 기업내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뒷받침해 나가는 컨설팅업체가 필요한데 국내에는 한국포장기술연구소와 한국포장시스템연구소 2개에 불과하다.

한국포장시스템연구소의 출현으로 포장업계가 활기를 띄고 있으며

의욕적인 이명훈 소장과 연구소가족들의 활동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성장을 가져왔다고 감히 단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1994년 6월초 설립된 한국포장시스템연구소는 마포구에 한 포장업체의 사무실에서 시작하였다. 당시 이명훈 소장과 직원 한명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모두 5명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포장컨설팅을 해야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반해 기업은 자사의 포장개발을 위해서 혹은 종합적인 포장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여력을 가진 체제가 안 돼있어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스템연구소 가족들은 연구소 설립을 통해 국내 최초로 포장전문가 집단을 형성함으로써 그간의

경험과 각 분야별 전문지식을 토대로 국내 포장기술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밝히는 이소장은 업체들이 컨설팅 의뢰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해 줄 것만을 요구하는데 체계적인 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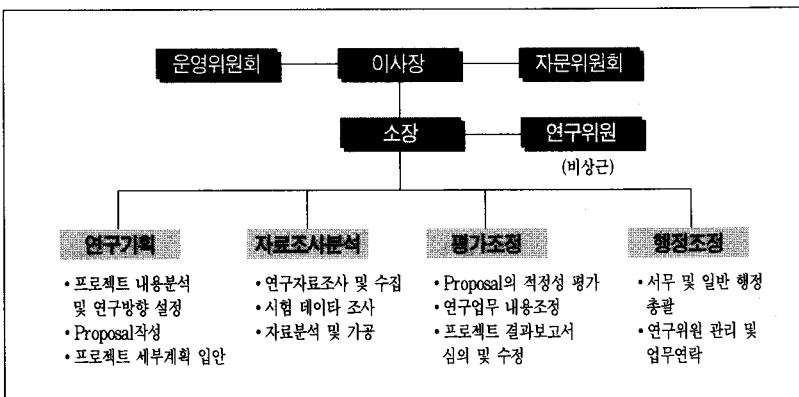
### 포장개발 현장실무자들로 구성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포장개발부 실무자들로 구성된 시스템연구소는 부장을 지냈던 남병화 상임위원이 포장관련 프로젝트 예를 들면 농산물포장 규격 개선이나 환경과 관련한 폐기물문제 등을 맡고 있다. 전종구 실장은 전기·전자제품 완충포장설계 분야를, 이수근 실장은 종합적인 컨설팅계획 진행과 식품포장 분야를 맡고 있다.

연구소는 상근직원외에 비상근 연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구위원은 업계 전문가 20여명이며 연구소 발전을 위해 각종 지원을 뒷받침하고 있다.

상임위원인 남병화 위원은 한양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서 19년간 근무한 포장장으로 공업진흥청, 중소기업진흥공단 포장기술 지도위원, 포장관리사

(표 1) 연구소 조직



(표 2) 비상근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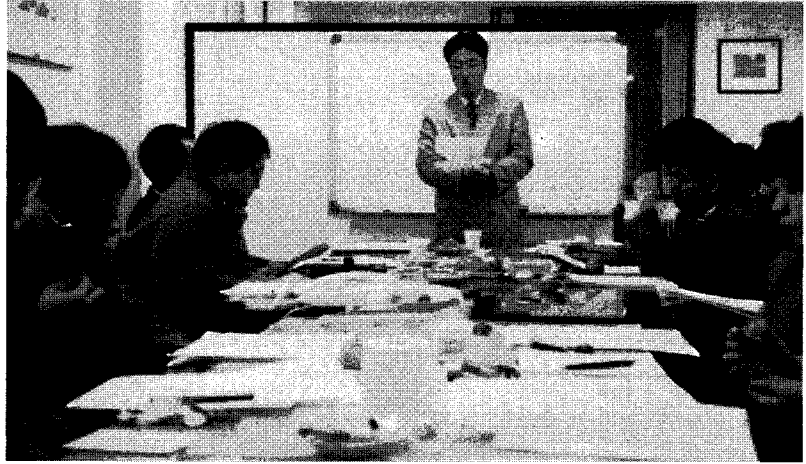
공재홍	포장산업(주) 이사
김득수	D & C 연구소장
김순철	한국지기공사 사장
김용진	한국알미늄 부장
김응주	삼성전자(주) 포장시험소장
김정환	한국물류관리협회 전무이사
김 천	퍼비디자인 대표
김태식	동신케미칼 대표
박형우	한국식품개발 연구원
배제근	서울산업대학 환경공학 박사
서병륜	한국 퍼렛트폴(주) 대표
서현열	(사)한국환경지류포장협회 전무이사
신동소	한국포장학회 회장
이광호	(주)서동중앙연구소 부장
이대성	전 한국포장협회 부회장
이준계	제림패키징 대표
이종각	한국전자공업사 회장
허인희	(주)우성산업 대표

강사, 한국표준협회, 물류관리협회의, 한국능률협회의 포장물류부문 강사, 공진청 KS물류·제지부문 심의위원, 포장기술사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고 있다. 남위원은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이 생산·마케팅 분야에만 치중함에 따라 포장·유통 등 간접 생산분야가 크게 낙후된 실정이며 포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포장에 관한 전문지식 결여 및 전문인력의 부족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라고 국내 실정을 밝혔다.

최근 연구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부산에 있는 성광전자의 포장진단을 마치고 컨설팅을 협의하는 단계이며, 풀무원도 교육을 끝내고 진단을 하려는 시점이고, 동원산업은 기본개념 강의를 막 시작한 상태다.

**미원 포장표준화 성공적으로 마쳐**

한편 연구소는 94년 10월부터 95



▲ 한국포장시스템 연구소는 비정기적으로 업계실무자들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은 지난 1월 7일 미시간 주립대학교 포장학과 학생들과 국내 실무자들이 함께 세미나 하는 모습).



▲ 연구소 구성원인 전종구 실장, 김경희, 이명훈 소장, 이수근 실장(왼쪽부터)

년 8월까지 10개월간 (주)미원의 전체 200여 품목에 대한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미원그룹의 식품분야 5개사에 포장표준화를 실시했는데 국가 표준 팔레트 규격인 1100×1,100으로 통합했던 것을 비롯하여 미원의 포장표준화 치수와 포장강도 표준을 설정하고, 기법 및 재료표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장관리의 표준화를 실시하여 미원이 포장에서만 연간 10억원 이상의 원가 절감을 올릴수 있게 되었다.

전종구 실장과 이수근 실장은 포장개발원에서 5,6년간 포장개발업무를 수행해 오다 이명훈 소장과의 합류하였다. 완충포장 분야를 맡고 있는 전 실장은 “얼마전부터 EPS에 대한 환경적인 면이 제검토되기 시작하면서 전기·전자제품의 완충포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조사·분석 업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즉 환경을 최대한 고려하고 적절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포장방법을 업체에게 제공하고자

[표 3] 연구소의 포장개선 추진 FLOW CHART

STEP I	상담 · 진단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소 소정양식</li> <li>· 우편 및 팩스 접수</li> </ul>
STEP II	업체방문 상담 및 진단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진단업체와의 상담</li> <li>→ 진단 분야 · 범위 협의</li> <li>→ 진단 일정</li> <li>→ 진단 비용</li> </ul>
STEP III	진단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포장 및 포장시스템의 문제점 조사 · 분석</li> <li>· 유통현황 조사 · 분석</li> </ul>
STEP IV	진단결과보고 · 제안서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단결과 보고서 제출 · 브리핑</li> <li>→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제시 (진단후 15일 이내)</li> <li>· 연구용역/컨설팅 제안서 제출</li> </ul>
STEP V	연구용역/컨설팅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단결과 보고 후 업체에서 결정</li> </ul>
STEP VI	연구용역/컨설팅 약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신청업체와의 약정협의</li> <li>→ 연구용역/컨설팅 분야 · 범위</li> <li>→ 연구용역/컨설팅 일정</li> <li>→ 연구용역/컨설팅 비용</li> </ul>
STEP VII	연구용역/컨설팅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소 : 전문 컨설턴트 선정</li> <li>→ 실무자 지도</li> <li>→ 컨설팅 진행</li> <li>· 업체 : TF Team 구성</li> </ul>
STEP VIII	연구 결과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과보고서 제출 및 브리핑</li> <li>· 사후관리</li> </ul>

[표 4] 연구원들이 현재까지 컨설팅한 실적

연도	대상업체	대상품목	컨설팅 내용
1991	제일제당(주)	다시다 등 82종	물류합리화를 위한 포장표준화 연구
1991	쌍용제지	티슈 등 54종	물류합리화를 위한 포장표준화 연구
1992	경동산업	냄비류 등 130종	물류합리화를 위한 포장시스템 연구 - 포장방법 개선, 포장표준화, 포장라인 자동화
1993	(주) 삼양사	전제품	물류합리화를 위한 포장시스템 연구 - 포장표준화, 지대 미끄러짐 방지 등
1994	동서식품(주)	커피믹스	일회용 커피믹스의 포장개선 연구
1994	(주)미원 ~ 현재	전제품	물류합리화를 위한 포장표준화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히며 “정부의 정책도 무작정 EPS를 규제하는 방법보다는 진정으로 바람직한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덧

붙였다.

연구소에 마지막으로 합류한 이수근 실장은 신성전문대학 포장과에서 강의를 맡고 있다. “무엇보다도 내

가 공부해온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직은 체계가 잡히지 않은 교육과 턱없이 부족한 설비로 만족할 만한 상태가 아니라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루빨리 포장의 중요성이 국가적으로 인식되고 이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바람을 토로했다.

국내 포장산업계에는 일할 거리가 많고 아직 많은 부분을 개선하여 그것을 원가절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하므로 그들은 조금도 설 틈이 없다.

이 소장의 바람은 순수한 연구소를 만드는 것이다. 독일 뮌헨의 FRAUENHOFER식품포장연구소, 함부르크의 수출포장연구소와 같이 우수한 시설과 인력, 그리고 기능을 갖춘 국내 유일의 연구소가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아직 기간도 얼마되지 않았고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들은 실질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력과 젊음을 무기로, 전 기업의 포장개선을 위해 발벗고 나서겠다는 당찬 다짐을 했다.

한편 한국포장학회 사무국이기도 한 연구소는 4년제 대학의 포장학과 신설이나 대학원에 포장과를 설치하기 위해 4년제 대학 포장학과 신설의 타당성에 대해 정부에 제출한 레포트도 완료해 놓은 상태이며 이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다. 포장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수 있는 포장학과 설립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업계는 소망하고 있다. ☐

##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전문 포장인 꿈꿔 지난 10월 포장기술사 자격 취득하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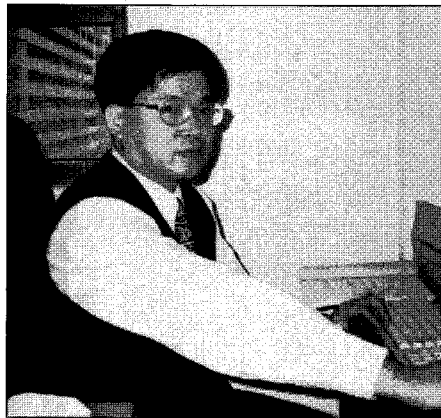
한국포장시스템연구소 이명훈 소장은 연구소 설립당시부터 화제의 주인공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6년간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서 업체지도와 포장개발업무를 수행하다 컨설팅업체를 설립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관심이 되었고 업계에서는 기다렸던 일이라 더욱 주목이 되었다.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 입사하여 배움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87년 미국유학길에 올라 미시간주립대학에서 포장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92년 귀국했다. 귀국후 배워온 학문을 업체에 환원하고자 막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쯤, 회사 여건상 포장업무를 그만 두어야 하는 사태에 이르렀고 그는 과감히 16년간 일해온 직장을 그만 두어야 만 했다.

그후 94년 6월 한국포장시스템연구소는 바로 설립하였고,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미 업계에서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정통학문을 배운 전문가로서 경험을 바탕으로 알뜰히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포장은 대개 보호성, 편리성, 판촉성 3대 기능이 있다고 기존에 정의되었는데 저는 여기에 환경보존성과 경제성을 추가하여 5대기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포장재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오인되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는 오히려 많은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소비자의 손에 제품이 도착하기도 전에 약 40~60%가 폐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전세계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량보다도 제대로 포장



▲ 이명훈 소장

하지 않아 폐기되는 폐기물량이 100배 이상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라고 기자에게 반문을 던지며 플라스틱 포장재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이 소장은 국내는 대기업조차도 포장분야의 전문가가 없고 식품회사도 부분 전문가들만이 있어 종합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어 컨설팅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포장업계를 이끌어가는 포장인들이 포장산업의 발전을 위해 마음을 열고 많은 노력을 해야함

니다. 즉 국내에 관련단체들 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야 하며 총포장단체연합회를 결성하여 전체 포장인들을 위한 행사를 주최하는 등 의미있는 사업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며 원로포장인들의 자문을 구해 후배들 양성에도 적극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도 외국에 나가 포장학문을 배워온 온 사람으로서 국내 포장인들의 교육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는 그는 현재 국내에는 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포장관리사교육과 두개의 전문대학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정규교육으로서는 고작인데, 우리나라도 분야별 전문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포장협회 산하에 중간관리자들을 위한 포장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업계에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고 바람을 토로했다.

이제 마흔 한살인 그가 포장업계에 종사한지도 십수년이 흘렀고 자신이 갖고 있는 포부를 위해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열악한 중소기업체 포장개선에 주력하겠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다. 이선하기자